



오롯이 담은 아픔의 역사 문화의 진미

변산반도 해넘이

광주일보 박성천 기자 '사진으로 본 문화역사기행' 발간



다산초당·해미읍성·하회마을...
3년간 취재한 30곳 조영
기자의 시각·인문학 사유 더해
역사·문화 다면적 시각 제공



“직접 발품을 팔아 보고, 듣고, 체험한 역사는 힘이 있다. 나의 것으로 온전히 체득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의미 있는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역사가 숨 쉬는 문화 현장을 찾아 오감과 상상력이라는 렌즈로 당대의 시간을 촘촘히 들여다본 문화역사기행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소설가인 광주일보 박성천 기자는 최근 문화와 역사가 응결된 우리나라의 대표 공간 30곳을 조명한 '사진으로 본 문화역사기행'(제이앤씨)을 발간했다.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글쓰기를 통해 사람과 세상, 문화에 대한 지평을 넓혀온 저자는 이번에는 문화와 역사를 날줄과 씨줄 삼아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책에 수록된 글은 광주일보 문화매거진 '예향'과 전남대병원 잡지 '푸른무등'에 연재했던 '문화역사기행'을 다듬은 것들이다. 3년여의 취재를 통해 저자는 단순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비껴서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이면을 오늘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저자가 직접 발품을 팔아 답사한 공간은 한번쯤 역사 수업 시간에 들었거나 드라마나 영화 혹은 문화 재현 작품에서 봤을지라도 장소들이다.

강진 다산초당, 운선도 유배지 보길도, 부여 낙화암, 화순 김삿갓공원, 부안 매장공원, 충주 탄금대, 서산 해미읍성, 정읍 동학혁명유적지, 김제 아리랑문학관, 고흥 소록도, 담양 소재원, 장성 필암서원, 광주 월봉서원, 군산 근대문화거리, 안동 하회마을 등...

언급한 대로 위의 공간에는 절절한 아픔과 통한의 역사가 스며있거나, 더러는 우리 문화의 진미(眞美)가 오롯이 깃들여 있다. 충주 탄금대, 서산 해미읍성, 부여 낙화암, 정읍 동학혁명유적지, 군산 근대문화거리, 고흥 소록도 등이 전자에 해당하는 곳이라면 강진 다산초당, 화순 김삿갓 공원, 안동 보길도, 장성 필암서원, 안동 하회마을, 담양 소재원, 광주 월봉서원 등은 후자와 관련이 있다. 물론 명확하게 둘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는 부분

도 없지 않다.

정찬주 소설가는 추천사에서 “섬세한 감수성과 격조 있는 문장은 그가 기자 이전에 소설가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문학평론가인 신형철 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역사적 교양과 문학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었으니 누구에게나 가치 있을 책”이라고 밝혔다.

저자가 주목한 이들 공간에는 특징적인 스토리가 내재돼 있다. 스토리는 오랜 시간을 지나 하나의 문화와 역사로 전이되는데 이를 해석하고 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행자의 몫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그 예로 서산 해미읍성에 있는 회화나무를 든다. 병인양요(1866년) 이후 불어닥친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수많은 교인들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잠극의 장면을 또렷이 기억하는 회화나무는 현재 치료 중에 있지만, 저자는 ‘죽음’으로써만 ‘주검’을 망각할 수 있는 천형은 가혹하고 무참할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책에는 기자의 시각, 작가적 상상력, 인문학자의 사유가 투영돼 있어 역사와 문화를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설가 특유의 감성적 문체와 저널리스트의 눈으로 본 현장감이 겹쳐져 읽는 맛을 더해준다. 또한 박성배 사진가와 최현배 광주일보 기자의 사진을 보는 맛도 쏠쏠하다.

저자는 “문화와 역사가 응결된 공간을 찾아나서는 것은 실례와 동시에 고통이기도 했다”면서도 “문화역사기행이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 바라보는 자의, 여행하는 자의 시각과 체험이 투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는 2000년 전남일보 신춘문예와 2006년 소설시대 신인상을 수상하며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전남대 영문과와 동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문학박사)을 졸업했으며 현재 문화기자와 예향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설집 ‘메스드느는 시간’, ‘복날은 간다’, 인문서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강 같은 세상은 온다’, 학술서 ‘해한의 세계 문순대 문학 연구’, ‘스토리의 변주와 서사의 자장’,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정희’ 등을 펴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마음·화합·대동세상... 정윤태 조각전

27일~7월 10일
조각·장식박물관
이름 바뀌 운영
진한미술관 개관전



▶'한국인'

‘쉬지 않는 손, 머물지 않는 정신’을 신조로 삼고 작업을 해온 조각가 정윤태 전 조선대 명예교수가 진한미술관 개관전으로 27일부터 7월10일까지 ‘정윤태 조각전’을 연다. 개막식 27일 오후 5시.

진한미술관은 광주 예술의 거리 인근에 자리한 세계조각·장식박물관(옛 대동갤러리)이 이름을 바꿔 운영하는 미술관이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7년간 제작한 작품 55점 중 엄선한 신작 35점을 선보인다.

최근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던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해 작품은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 위주로 구성했다. 지난해 남부대에 기증하며 공개했던 높이 2~3m 크기 대형작품과는 달리 높이 1m 내외의 아기자기한 구성이 돋보인다.

사람들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작품 ‘한마음’과 ‘화합’ 등은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치자는 메시지를 건넨다. 특히 성차별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성을 모델로 삼았고 대부분 하늘을 쳐다보는 동작으로 만들어 ‘소망’을 표현한다.

정 교수가 제작에 참여한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 결면에 새겨진 브론즈 작품(각 40×60cm 크기)도 전시해 눈길을 끈다. 종 4개면을 차지하고 있는 ‘무등산 입석대’, ‘대동세상을 꿈꾸며’, ‘대한독립만세’, ‘광주는 살아있다’ 등 원판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들이다.

정 교수는 이번 전시가 끝난 후 장소를 옮겨 부산 타워아트갤러리에서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부산조각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조각은 빠른 기간 내에 다작을 하기 힘든 분야이지만 앞으로는 2년에 1번씩 10점 내외의 소작을 꾸준히 전시할 계획이다”며 “힘 닿는 데까지 삼라만상을 담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조선대 사범대학과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광주미술협회장, 광주시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전국조각가협회장 남도조각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문화훈장, 문공부장관상, 프랑스 르 샬롱전 동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63-42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나의 노래'... 임근재 초대전 7월 2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꽃을 통해 세상사를 이야기하는 임근재 작가가 전남대병원 1동 로비 CNUH갤러리에서 '나의 노래'를 주제로 7월2일까지 초대전을 연다.

남도 풍경과 꽃을 그려온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도 나팔꽃·매화·장미 등 꽃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은 유화물감을 사용해 정교하면서도 투명하게 그려낸 점이 특징이다. 작품 속 꽃 위에는 꿀벌들이 날아다니며 생동감과 활기찬 분위기를 가미한다.

'나의 노래(8월)'은 활짝 핀 보랏빛 나팔꽃에 꿀벌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을 소재로 삼아 공간을 형성한다.

청록빛 배경과 분홍색 꽃잎 또는 연꽃빛 배경과 보라색 꽃잎 등 색채 대비를 활용해 꽃을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했다.

임 작가는 “고향집에서 작업실로 가는 중 이슬을 머금은 나팔꽃에 매료돼 작품에 담게 됐다”고 밝혔다. 임 씨는 조선대 회화과와 조선대 교육대학원을



'나의 노래'

졸업한 뒤 수석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개최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광주시미술대전 대상·전남미술대전 우수상 등 다수 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